

이달의 초점

## 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강희정|

2024년 소득보장 정책의 전망과 과제

|김태완·최준영|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안수란|

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신정우|

2024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이소영·황남희·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The 2024 Outlook fo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 Management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 정보의 투명한 관리와 시의성 있는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 DB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재정 DB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 위기 진단 등 각종 사회보장 정책 모니터링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이를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과 연계하여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사회보장 부담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등 2024년에는 사회보장재정 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꾸려 나갔으면 한다.

## 1 들어가며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2023. 6. 28.)를 개최하여 2023~2027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앞서 세워진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 혁신 과제를 검토하였다. ‘2022~2026년 국가재

정 운용계획’은 2022년 8월에 발표된 것으로 중기적 시계에서의 정부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초를 확립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되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지출의 재구조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활용하고, 심화해 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을 지속해서 늘려 가고자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제 비교에 통용되는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OECD 평균인 21.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OECD, 2023). 하지만 이는 2000년에 비해 10.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다른 OECD 국가(평균 3.8%포인트 증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지출 증가의 약 60%를 노령 지원과 보건의료가 차지하고 있는 점은 빠른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관련 사회보장제도(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낳았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외에도 경제성장률 하락, 기후변화 적응, 국가안보 위협 등이 사회보장재정의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 운용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지출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장 우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성과 기반의 예산 편성이다. 사회보장 분야의 예산을 막연하게 늘리는 것이 아닌 사회보장사업의 성과 및 산출을 측정하고, 이것이 사회보장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과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 지출 규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정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각종 활동을 이어 가야 한다. 이 원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분야에서 2024년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에 앞서 사회보장재정 관리를 위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간의 이행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점검한다.

## 2 사회보장재정 관리를 위한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

2022년 7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 과제’는 사회보장재정 관리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 예산 전체를 놓고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국정 과제 5).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국가채무, 재정적자 등)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특히 정부는 지출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저성과, 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등 지출 구조의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을 꾀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보장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이루는 것을 다른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국정 과제 42). 두 가지 국정 과제와 모두 연관되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신설변경협의제도(이하 협의제도)가 있다.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에 시작되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 조달 계획,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적정성, 재정 집행의 효율성 등 재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사회보장사업의 실행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바 정책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협의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특히 협의 요청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협의 요청 사항 및 검토 완료 사업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협의제도 실태 분석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웹사이트<sup>1)</sup>에 따르면 2013년

61건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7800건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최근에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같은 사이트 내 '신설 변경 협의제도 결과 검색'도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정보의 시의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개별 협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협의 요청을 준비하는 주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관련 사업의 자격 기준, 지원 내용, 투입 재정 등을 설정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협의제도의 실태 분석 등을 위한 내부 DB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투명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각 주체가 사업비 등 투자 자원을 조성하고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정 과제에서는 사회지출의 높은 구성비를 차지<sup>2)</sup>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국정 과제 42번(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은 '연금개혁'을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목표대로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sup>3)</sup>을 마련하였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정 과제 66번

1)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협의제도 통계' (<https://www.ssc.go.kr/home/kor/discussion/receiptAgenda.do?menuPos=52>) 및 '신설변경협의제도 결과 검색' (<https://www.ssc.go.kr/home/kor/discussion/resultList.do?menuPos=55>).

2) 2020년 기준 공공 사회지출 279조 3000억 원 중 보건(98조 7000억 원, 35.3%), 고령(65조 5000억 원, 23.4%)의 지출 규모가 크다. 보건은 건강보험을, 고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빈틈없는 재정관리를 통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료 부과율의 형평성 제고,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를 주문하였다.

양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필두로 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지속 가능성 평가 및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이며 안정적인 지출 모니터링과 추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4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20. 8.)를 끝으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을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전망 정보가 필요하다. 법률이 규정한 공표 주기를 준수하여 추계하거나,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지난 네 차례의 경험을 토대로 추계 방법론, 주기 등을 재설정할 수도 있다. 송창길(2023)은 현 재정 추계가 각 기관의 추계 결과를 원용하는 데 그치는 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 재정추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 3 사회보장재정지출 산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OECD에 가입한 이후 2년 주기로 사회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제출 시점은 2022년 3월로 2018~2019년 확정치와 2020~2022년 예측치를 제출했다. 2023년 11월 현재 OECD 통계 포털은 1990~2020년의 영역별 상세 지출 정보를 제공하고, 2021년과 2022년은 GDP 대비 지출 규모만 제공 중이다. 사회지출 통계의 OECD 보고는 회원국의 의무 사항으로, OECD가 제시한 작성 기준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고 지출 규모를 집계한다. OECD는 개인과 가족이 복지에 불리한 환경에 처하는 동안 공공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는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사회지출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목적을 띤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데, 개인 간 재분배나 강제 가입의 성격이 있는 급여 제공 프로그램이 해당한다(고제이, 하솔잎, 안영, 이아영, 이기호, 박소은, ... 박희진, 2022).

OECD 사회지출은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의 특성에 따라 공공, 법정 민간, 자발적 민간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공공 재원은 일반정부, 사회보험, 공기업의 지출로 구성되며, 주로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정부 재정 사업을 포함한다. 법정 민간 재

3)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5대 분야(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의 15개 과제를 제시한다.

**[표 1] OECD 사회지출의 범위**

구분	주요 내용
공공 사회지출	일반(중앙+지방)정부 재정(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험(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강·장기요양·산재·고용보험) 공기업(취약계층 교통·통신 요금 할인)
법정 민간 사회지출	고용주 법정급여(법정 퇴직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민간 기업의 취약계층 교통·통신 요금 감면
자발적 민간 사회지출	민간 기업의 비법정복지·사회공헌 제3섹터(사회복지 시설·공익법인, 사회적기업, 공제회)

주: 고제이 외(2022)에서는 통계명을 사회복지지출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이 원고에서는 향후 통계명의 변경을 고려하여 원어 그대로 사회지출이라고 변경하여 제시함.

자료: 고제이 외. (202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2018/2019년 확정치.

원은 강제성(compulsory)을 갖는 민간 사업을 포함하는데, 고용주가 부담하는 법정 퇴직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취약계층 교통·통신 요금 감면 혜택, 자동차 책임 보험(의료) 등이 대상이 된다. 자발적 민간 재원에는 기업의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지출하는 비법정 복지 지출, 비영리단체의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 공제회 등이 포함된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회지출’보다 ‘사회복지지출’이라는 통계명으로 관리됐다. 하지만 이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용어로 비롯되는 이해의 혼선을 우려하여 2023년 들어 통계명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OECD 사회지출은 행정, 조사, 평가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비용을 제외하는 등 국내의 모든 사회복지 활동을 총망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법적 범위<sup>4)</sup>와 OECD 사회지출 DB의 포괄 범위를

를 비교하는 등의 시간을 한 해 동안 가져왔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사회보장재정지출이 유력해 보인다. 더불어 OECD가 수집하는 범위(사회지출)에 그치지 않고, 외연을 확대하여 사회보장재정지출 DB를 구축하여 국내적인 활용을 우선하고, 이 중 일부를 OECD에 제공하여 국제 비교 등에 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통계는 1990년부터 제출되었다. OECD에는 국내 정보가 수집된 형태 그대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가공 절차를 거친 정보가 가게 된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은 정부 결산 정보에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비용이 더해진다. 사회복지 공익법인 후원금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기부금 총액을 기부금 수익 상위 50개 기관의 비율 정보를 적용하여 기능(노령, 유족, 장애, 가족, 기타)별로 배분하여 추정한다.

4) 사회복지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가공 결과는 연구자의 상당한 노력에 기반한 것으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재정 정보를 DB화(가칭 사회보장재정지출 DB)하여 정책적 활용성을 넓혀 가야 한다.

#### 4 사회보장재정지출 모니터링과 평가<sup>5)</sup>

2022년에 발표된 120대 국정 과제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 재정 성과 관리 체계 강화(국정 과제 5)가 있다. 이는 핵심 사업을 통합하여 범부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환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결산체계 개편을 이루어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드시 예산 환류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지출의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사회보장사업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

우선 현재 사회보장재정지출의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OECD 사회지출 통계를 독보적인 도구로 내세울 수 있지만, 이는 국가 간 비교를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책 수행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얻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OECD 통계 포털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사업을 2020년 기준

130여 개로 축소한바 정부 사업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없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보다 한 차원 세부적인 프로그램 또는 단위 사업 등 정책 집행 단위에서 재정지출 정보가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고유 사회보장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재정지출 DB(가칭)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여 하술익, 고제이, 송창길, 조용찬(2023)이 제안한 지출 동인 분석, 장기 전망 등과 연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근거 기반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확장된 정보를 다각도에서 살펴봐야 한다.

평가 측면에서도 사회보장사업이나 정책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특히 성과 기반의 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고보조금의 적정성 평가 등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이 원고에서는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 관점에서 그간 간과했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측정하여 사업 성과를 진단할 것을 제안해 본다. 이아영, 최영출, 김태완, 안영, 고숙자(2021)와 나원희, 이아영, 신영규, 하술익, 황안나, 박윤현(2024. 3 발행 예정)이 검토한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투입 비용 대비 성과의 가치를 화폐

5) 이 부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데이터 연구실이 2023년에 수행한 주요 과제의 정책 제언을 집약한 것으로, 관련 보고서는 참고문헌에 발행 예정으로 표기한다.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제이 외(2023)의 제안을 반영한 사회보장 비용 부담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적정성 수준도 판단해야 한다. 주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부담 인식과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면 정책 평가의 새로운 시작점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전 세계 유례없는 빠른 인구 고령화는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의 핵심 동인이다. 2000년 이후 OECD 사회지출 증가분의 약 60%를 차지하는 고령과 보건 지출이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한다. 한편 노동 구조 변화, 플랫폼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른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들이 사회보장재정 확충 기반을 위협해 오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줄어드는 재정수입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필요(Needs)에 기반한 효율적 지출’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재정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DB에 체계적으로 쌓아야 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정 정보를 모두 한 번에 모을 수는 없겠지만, OECD 사회지출과 같은 일정한 분류 기준에 기초하여 사회보장재정의 외연을 고민하며 지출 등 재정 정보를 집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보장재정 지출의 참규모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사회보장재정지출(거시 정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별 지출 정보(미시 정보)도 함께 쌓아야 한다. 전국 모든 사업의 지출 정보를 종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사회보장사업의 신설 변경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각 사업의 재정 정보를 투명하고 시의성 있게 공유하여 각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거시 정보와 미시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지출 현황을 종합하는 DB가 된다. 이 정보는 현 상황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성과 평가, 지출 동인 분석, 장기 전망 등 여러 목적에서 쓰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다소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사회보장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석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평가하고 국민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한 자원 배분을 해야 한다.

2024년은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강화 활동의 불을 지피는 해가 되었으면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간 미루어 두었던 사회보장재정 DB 구축 사업을 본격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조사와 평가 사업을 도입하여 다양한 재정 관련 정보를 모았으면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재정 데이터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제이, 하솔잎, 안영, 이아영, 이기호, 박소은, ... 박희진. (202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 산출: 2018/2019년 확정치**.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제이, 하솔잎, 조용찬. (2023). **사회보장 재정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연구: 사회보장지출 관리제도화 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원희, 이아영, 신영규, 하솔잎, 황안나, 박윤현. (2024 발행 예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효과 분석: 국공립어린이집의 사회적투자수익률(SROI)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정부 12대 국정과제**. 사회보장위원회. (n.d.). 신설변경협의제도 통계 <https://www.ssc.go.kr/home/kor/discussion/receiptAgenda.do?menuPos=52> 에서 2023. 12.9. 인출
- 사회보장위원회. (n.d.). 신설변경협의제도 결과 검색 <https://www.ssc.go.kr/home/kor/discussion/resultList.do?menuPos=55> 에서 2023.12.9. 인출
- 송창길. (2023).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아영, 최영출, 김태완, 안영, 고숙자. (2021). **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기반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솔잎, 고제이, 송창길, 조용찬. (2023). **사회보장 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 2023. 12. 10.

# The 2024 Outlook fo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 Management

Shin, Jeongwo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Korea's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grow at a markedly rapid pace, the need has arisen to consider how best they should be managed.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social security projects, in particular, there is an acute need for the transparent management and timely provision of expenditure information. This would require a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base that can be used not only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but also as a means to monitor various social security policies, allowing for future projections and risk assessments. It is crucial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social security projects not merely in economic terms but, through metrics such as social return on investment, in terms of social values. In addition, I anticipate initiatives this year to develop a social security expenditure database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in light of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perceptions regarding social security burden, all aimed at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